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2016) : 405～410 Southeast Asian Review 26(4)

<서평>

# 자연, 과학, 권력:
## 식물원과 국가 만들기

Timothy Barnard. *Nature's Colony: Empire, Nation and Environment in the Singapore Botanic Gardens*. Singapore: NUS Press, 2016

**여 운 경***

"근대"의 특징 중 하나는 공간 개념과 활용의 변화이다. 제국의 등장,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정치적 의미와 기능을 지닌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했고, 이 공간들은 상징적, 실제적 힘을 지녔다. 박물관, 학교, 병원, 플랜테이션 등은 국가 권력이 행사, 표현되는 공간이자 근대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는 장소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Henri Lefebvre의 *Production of Space*로 대표되는 공간-권력 관계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시아 연구, 특히 (탈)식민지 연구에서도 많이 진행되었다. 수마트라 플랜테이션 지대의 구좌와 갈등을 분석한 Ann Stoler의 *Capitalism and Confrontation in Sumatra's Plantation Belt, 1870-1979*, 식민지기 바타비아의 근대적 생활, 공간에 주목한 Rudolf Mrazek의 *A Certain Age*와 *Engineers of Happy Land*, 식민지기 캄보디아의 공간과 국민 형성에 주목한 Penny Edwards의

*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wkyeo@snu.ac.kr

*Cambodge: The Cultivation of a Nation, 1860-1945*, 싱가포르 도시 공간과 권력관계를 분석한 Brenda Yeoh의 *Contesting Space in Colonial Singapore*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식민지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의 공간 정치에 대한 Abidin Kusno의 연구들(*Behind Postcolonial; Appearances of Memory)*등 건축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개 식민사회에서 만들어진 공간이 권력을 상징/행사하는 방식,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형성/변화되는 정체성, 혹은 민족주의 등을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 식물원에 주목한 Nature's Colony 역시 이런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싱가포르 대표 명소의 하나인 Singapore Botanic Gardens(이하 SBG)의 형성과정과 배경, 현재적 의미를 분석한 이 책은, 식물원이 단순한 오락/휴식 공간이나 다양한 식물군의 집합체가 아니라, 근대 국가 형성의 핵심적 요소이자 국가 권력의 위상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린네(Linnaeus) 이후 자연을 분석, 분류, "지배'하는 것이 근대적 "발전"의 필수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잘 만들어진 대형 식물원은 발전된 과학과 문명의 상징이기도 했다. Barnard는 초국적, 탈지역적 역사를 추구하는 연구자답게, SBG 를 싱가포르 내부 혹은 영국 식민주의만의 산물이 아닌, 서구 제국주의 전반에 걸쳐 서로 연결된 현상의 하나로 주목한다. 저자는 그 동안 환경, 자연, 다양한 문화와 일상을 통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역사를 분석해왔는데, 식물원을 통해 싱가포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연구에는 그의 이런 기존 관심사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시대순으로 배열되었지만, 한편으로 각 장은 구분되는, 그러나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제로 짜여져 있다. 크게 봐서 1-4장은 19세기, 5장 이후는 20세기의 내용에 집중한다. 1장은 싱가포르 건설 초기부터 SBG가

계획, 건설되는 초기 과정을 설명하고, 2장은 이 과정에서 영국의 식물원(Kew Gardens)과 SBG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즉 제국의 중심과 식민지가 식물원, 식물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어떻게 소통했는가를 보여준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동남아 식민지에서 자연/환경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한 SBG가 보다 넓은 식물학 연계망(botanical network) 속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가 3장에 분석되어 있다. 4장은 앞서 언급한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연결된 것으로, 동물 분석과 동물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5장은 20세기 이후 식물/작물 생산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물원도 이 목적을 위해 "경제 정원(economic garden)"으로 변모하고, 이것이 과학의 발전, 그리고 많은 대농장의 건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석한다. 6장은 이 과정에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한 싱가포르 연구자들을 소개하고, 7장은 많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실험실(laboratory)의 활성화와 그 속에서 개발된 난초(orchid)가 싱가포르의 상징물로 대두되는 과정을 그린다. 8장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집착하는 독립 싱가포르에서 자연/식물이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과정, 즉 제국의 식물학(imperial botany)이 개발 식물학(developmental botany)로 전환되는 모습을 분석한다.

일견 식물학, 식물원이라는 특정한 분야만을 다루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식민지기 싱가포르, 더 나아가 제국주의/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에 해당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학과 전문가의 대두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근대 서구 세력은 영토 점령/확장과 더불어 현지의 자연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요소라 생각했고, Alfred Wallace를 비롯한 많은 서구 지리학자, 과학자들이 다른 세계의 자연 정보를 수집했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가 시행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 식물원이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주장처럼 식물원은 제국/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영국 제국의 힘은 해군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자, 상인, 관료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도 했다(p. 9).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대상, 특히 식민지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가 이른바 식물학 연결망(botanical network)이다. 19세기 이후 유럽세력들은 대개 타 대륙의 식물학, 과학에 대한 지식과 열망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한 자원 이용 및 보존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Raffles가 식물학 발전을 위해 덴마크인 Nathaniel Wallich를 기용한 것은 그런 지식의 보편성과 연결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 20세기 초반 경제 정원, 경제 식물학(economic botany)의 발전은 당시 상업작물 재배를 위한 플랜테이션 건설과 그를 위한 농업기술 연구라는 분위기를 반영한다. 특히 20세기 초 가장 중요한 상업작물로 떠오르기 시작한 고무 재배를 위한 연구, 투자와 그 사회적 영향은, 20세기 중반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고무 시장으로 부상하는 싱가포르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819년에 건설된 싱가포르의 역사를 생각할 때, 건국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SBG의 건설 과정과 배경은, 싱가포르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이기도 하다.

책의 많은 부분이 영국 식민지기를 다루고 있지만, 저자는 후반부에서 식민지기에 형성된 식물원, 식물학의 전통이 독립 이후 "국민국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개발 식물학" 외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Greening Program, Garden City Program 등을 통해 도시 녹화사업과 공원 건설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식물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 식물학과 식물원이 보다 강한 국가(공무원)의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부가 도시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식민정부가

진행했던 SBG 건설, 자연보존 프로그램, 식물학 연구 진흥 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해 식민지기-국민국가 시기의 연결성과 권력 문제를 읽어낸다는 점에서 이 책은 앞서 언급한 Kusno의 도시 건축물 연구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식물원이라는 공간에는 자연과 과학이라는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다. 식물원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집합처이기 전에, 근대의 과학과 자연 정복 의지, 즉 인간의 욕망이 모여 탄생한 공간이다. 저자는 SBG가 2015년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 선정된 것이, 선정 이유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곳이 단순한 자연 공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형성된 곳(cultural landscape)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259).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과 분석을 담은 책이지만, 한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 우선 이 책은 명백히 공간과 공간의 정치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간에 대한 이론적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과학, 과학자, 그리고 관료와 정부에 대한 많은 자료와 논의들이 있는데 반해,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서 물리적 구조를 넘어서 좀 더 이론적 분석이 좀 더 있었다면 식물원이라는 공간의 의미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예컨대 Lefebvre가 말한 표상적 공간, 사회적 공간이나 공간에 대한 지리학 이론 등).

다음은 공원의 “이용”에 대한 것이다. 책의 초점이 기본적으로 공원의 건설자, 운영자, 정책 등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식물원의 또 다른 기능인 놀이 혹은 여가 공간으로서의 공원 이용자의 목소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싱가포르 독립 이후 시기는 이런 내용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말한 프로그램들, 그 속에서 자연과 공원이 싱가포르의 하나의 대표적 특징으로 선전되는 것은, 탈식민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 혹은

이른바 “국민만들기”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이용자, 국민들의 시선이 궁금해진다. 성격은 다르지만 20세기 후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국가/국민정체성 상징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문화공원 등 유사한 사례와의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소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책의 장점은 그런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SBG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싱가포르 근현대사, (영국) 제국주의와 과학/자연, 근대적 공간과 정치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이 책은, 싱가포르/동남아시아 역사 전공자 뿐 아니라 위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YEO Woonk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